



익산시가 오는 12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에서 2019 여성회관 어울림 축제를 개최한다.

시민과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

익산시 여성회관, 내달 3일부터 공연발표회·전시회·체험교실 등 다채

익산시가 오는 12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에서 2019 여성회관 어울림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 한 해 여성회관 교육을 마무리하며 수강생 및 지도강사가 교육을 통해 배운 재능과 작품들을 함께 나누고 즐기기에 마련됐다. 축제 기간 중 상시 열리는 작품전시회는 서예, 캘리그래피, 양재·홈패션, 가구DIY 등 8

개반 교육생들이 직접 만든 다양한 작품이 소개된다. 또 4일 오후 5시에 개최되는 공연발표회에서는 우리소리, 오카리나, 불륨댄스, 기타 등 8개반 교육생들이 참여해 그동안 배우고 익힌 악기 연주와 노래, 춤 등을 선보인다. 특히 3일과 5일 여성회관 교육장에서 진행되는 태핑과 마크라메, 캘리그래피지도사 강좌는 무료 체험교실로 운영되며, 참여자는 방

향제와 마크라메 키링을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열린교실에서는 요가, 국선도 등 여성회관에서 진행 중인 10여개 강좌를 청강할 수 있으며, 비교적 어렵지 않은 강의로 진행해 누구나 부담 없이 수강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어울림 축제는 시민 모두에게 활짝 열려 있다"며 "한 해 동안 교육생들이 열심히 준비한 작품과 공연 등을 시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익산=장원영 기자

한국국악협회 부안지부, 다문화가정 초청 국악공연 성료

한국국악협회 부안지부(지부장 최백열)는 최근 부안예술회관에서 다문화가족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문화가정 초청 부안군민과 함께하는 국악공연'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공연에는 부안향제줄풍류에서 준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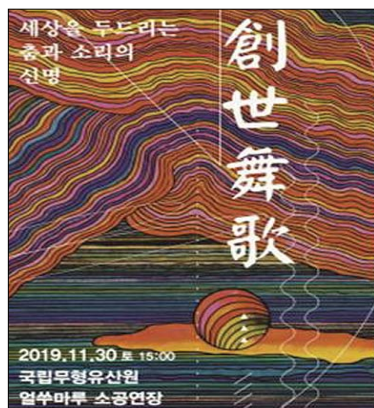
줄풍류를 시작으로 남도민요, 판소리 적벽가 군사설음타령, 무용, 창극 화초장 등 다양한 장르의 국악공연을 선보였다. 특히 전북도 무형문화재 제49호 가야금병창 예능보유자 박애숙 명인이 제자들과 함께 가야금의 우아한 선율을

선보여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최백열 부안지부장은 "이번 공연을 통해 다문화가정과 부안군민들이 함께 다양하고 신명나는 국악의 향연을 즐기실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공연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군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국립무형유산원, '춤과 소리의 신명 창세무가' 무료 공연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오는 30일 오후 3시 전주 국립무형유산원 열쑤마루 소공연장에서 '세상을 두드리는 춤과 소리의 신명 창세무가' 공연을 연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지난 4월부터 국립무형유산원이 개설한 전통공연·예술 전문가 과정의 교육 결과물로서 수료생들이 공연 제작에 필요한 이론 교육과 현장 실무 과정을 통해 준비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3호 남사당놀이, 제27호 승무, 제29호 서도소리, 제39호 처용무, 제50호 영산재, 제57호 경기민요, 제82·4호 남해안별

신굿, 제85호 석전대제 등 다양한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전승자들이 출연한다. 공연은 전석 무료이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국립무형유산원 관계자는 "이번 공연으로 교육 수료생인 전승자들은 공연 제작에 필요한 기획·연출·진행 등 세부적인 역할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값진 경험을 얻고 국립무형유산원 역시 전승자들이 만들어낸 독창적인 공연 목록들을 자료화해 보관·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시스



우리나라 고유 창작음악 '널리널리'

전북대 김지환 교수, 베를린 한국창작음악제 초청대 연주회 펼쳐

전북대학교 김지환 교수(음악과)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고 있는 제1회 한국창작음악제에 초청돼 28일 연주회를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현대음악의 본고장인 독일에서 한국 고유 창작음악 연주를 통해 우리 음악의 스펙트럼을 확장하고, 한국 현대음악 작곡가의 창작음악 작품을 소개해 우리 작곡가들과 연주자들의 우수한 역량을 알리고자 기획됐다. 김지환 교수는 서울대 음대(작곡과 이론전공)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에서 오케스트라 지휘 전문가 과정을 졸업했다. 이후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대에서 오케스트라 지휘로 디플롬을 마쳤으며, 정치용, 파비오 루이지, 케니스 키슬러, 콜린 메터 등 세계적인 거장들의 문하에서 수학했다. 2002년 강준일 창작 칸타타 '백범 김구' 프로젝트의 부지휘자로 활동했으며, 이후 유럽유스 오케스트라, 전주시향, 강남 심포니, 포항시향 등의 객원 지휘자를, 대구 '꿈의 오케스트라' 감독을 역임하고, 2017년까지 서울시 유스오케스트라 단장 겸



상임지휘자로 활동했으며, 현재 전북대학교 예술대학에서 후학을 양성 중이다. 한편 제1회 한국창작음악제는 독일 베를린의 대표적 연주장인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체임버홀에서 12월 6일까지 개최된다. /장은성 기자



정읍시 여성문화관이 최근 '2019 여성문화관 작품 전시·발표회'를 가졌다.

정읍 여성문화관, 작품 발표회 가져... 갈고 닦은 실력 뽐냄

정읍시 여성문화관은 최근 '2019 여성문화관 작품 전시·발표회'를 가졌다. 이번 여성문화관 프로그램 수료생들이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유진섭 시장 내외와 정읍시의 회 최낙남 의장을 비롯해 여성문화관 운영위원과 프로그램 수강생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먼저 가곡 합창반의 아름다운 하모니 합창으로 막을 올렸다. 이어 하모니카반은 추억의 노래를 연주하며 관객의 옛 화창시절 추억을 떠올리게 했다. 중국어반과 영어반은 중국어, 영어로 공연으

로 뛰어난 외국어 실력을 뽐냈다. 발리댄스와 라인댄스, 댄스스포츠반도 화려한 무대를 선사하며 관객의 흥을 돋웠다. 더불어, 한지공예반은 한지로 만든 공예 작품을 전시하고, 다도반은 차 시음 체험을 운영했다. 유진섭 시장은 "수강생들의 열정적이고 수준 높은 공연이 감동적이다"며 "앞으로 시민이 더욱 많이 찾을 수 있는 여성문화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여성문화관 프로그램은 하모니카반, 중국어반, 다도반 등 총 43개 반으로 운영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